

혈자리 자극, 당부기혈 소동

기운의 출입문, 경혈

경혈은 한마디로 ‘몸 가운데 급소’이다. 누르면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프거나 혹은 시원해지는 곳이다. 경혈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경락의 기가 모이고 출입하는 곳으로 경혈을 자극하면 몸 안의 내장 기관에 자극이 전달된다. 침뜸은 이러한 몸의 급소인 경혈을 찌르고 뜸을 때 아픔을 없애고 내장 활동을 좋게 하는 것이다.

이미 3천년 전, 의사(醫者)들은 경혈의 존재를 발견했다. 인간의 몸은 어딘가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몸 겉으로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변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경혈을 자극하거나 따뜻하게 해서 ‘몸에 나타난 이상’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이 침뜸의학의 핵심이다.

특수한 에너지의 통로, 경락

침뜸의학에서는 몸의 기능을 오장육부(五臟六腑)의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을 말한다. 육부는 대장, 소장, 담, 위, 방광, 삼초를 말한다. 장부의 특수한 에너지를 기혈(氣血)이라고 한다. 이 특수한 에너지가 다니는 통로가 바로 경락(經絡)이다. 기혈이 경락이라는 길을 통해서 오장육부, 즉 인간의 몸을 움직이게 한다. 이 기혈의 많음과 부족함에 따라 몸의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진다.

우리 몸엔 14개의 주요 경락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12정경과 임맥·독맥이라고 하는데 이 경락은 치료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너지의 통로인 경락상에 위치한 경혈을 자극하면 멈춰 있는 기운이 잘 돌아 몸이 정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어느 경혈이 어느 병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똑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증상의 경중이나 원인도 각기 여러 가지여서 그에 맞게 처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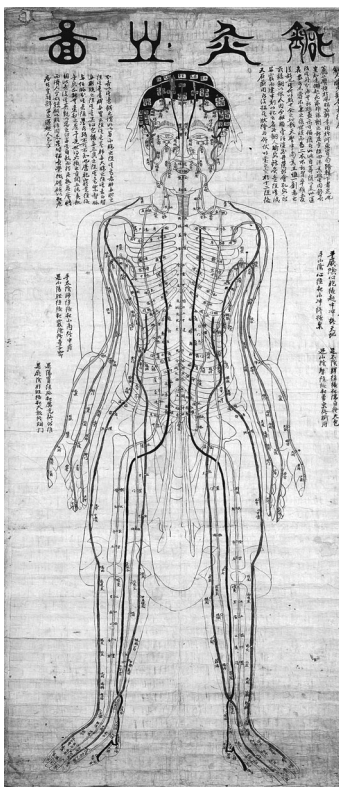
값싸고 효과 좋은 민간요법

“침뜸 처방은 돈을 들여가며 멀리서 구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되며... 준비하기 쉽고 휴대하기도 간편하며, 빈부귀천이나 병의 완급에 관계없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없고, 하물며 효과서도 약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바가 있어 그 신묘함을 다 말할 수 없다”

성종 때 중국 침뜸의서인 ‘신응경(神應經)’을 중간하면서 서문에 한계희가 쓴 글이다. 침뜸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뜸뜨기는 재료도 간단하다. 뜸쭉과 선향, 그리고 시술자의 정성만 있으면 된다. 꾸준히 뜨다보면 다른 의료수단으로 치료하지 못했던 만성질환 치료에 대단히 효과가 높다. 부작용도 없다. 침뜸은 모든 병에 유효하다. 침뜸치료는 체질을 개선해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병에 걸리기 전에 손을 써서 병나지 않게 하는 것을 최고의 의술로 보았다. 이는 침뜸에 꼭 맞는 말이다. 침뜸은 병이 났을 때도 효험을 발휘하지만 병들기 전의 예방과 건강 유지에도 훌륭한 위력을 발휘한다.



경혈도

시설

‘침구집성’ 원저자 바로 잡아야

조선의 침뜸이 일본에서 한류(韓流)를 이루며 퍼져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 허임과 침구경험방이 있다. 그런데 지난 1874년 중국에서는 청나라 라오롄홍(廖潤鴻)의 저술로 발간된 침구집성(針灸集成)이 허임의 침구경험방 전 내용과 동의보감의 침구 관련 부분 및 유경도의(類經圖翼)의 일부를 그대로 짜깁기 하여 출판한 사실이 확인됐다. 침의 허임이 평생의 임상을 바탕으로 쓴 침구경험방이 허임의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고, 청나라 라오롄홍(廖潤鴻)이 지은 것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침구집성은 저자의 이름을 거짓으로 갖다 붙인 일종의 위서(僞書)인 것이다. 침구집성의 편집태도는 대단히 불랑스럽다.

침구집성은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의 침구 관련 내용으로 출판한 조선의 침구자료집으로 봐야한다.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 침구편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두 책은 당시까지의 침구의서를 폭넓게 수용한 바탕 위에 조선의 독자적인 침구 임상경험을 추가하여 정리한 조선침구학의 최대의 성과이다. 침구집성이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 침구 관련 부분을 한데 묶어 놓음으로써 조선의 양대 침구문헌의 가치를 인정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들 책의 국적이 잘못 기록된 채 청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침구경험방은 단순히 의방서를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 신의 의술로 명성을 날린 조선의 침의(鍼醫) 허임이 치종의의 정통 맥을 이어 받고, 침구술을 터득하여 일생동안 수많은 조선 사람들을 치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조선 침구전문서의 효시가 되는 책이다. 그러다보니 침구경험방은 다른 의방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허임의 평생 임상이 녹아있는 새로운 저술이다. 침구집성은 이 침구경험방을 그대로 베끼면서 허임의 이름을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고 있다.

또 동의보감은 의학입문 동인경 자생경 등 중국의 의방서를 일목요연하게 재편집하여 집대성하면서, 원래 인용한 의서의 출처를 일일이 주석으로 달아서 집필한 책이다. 그런데 침구집성에서는 동의보감 침구 관련 내용을 다시 그대로 옮겨 쓰면서 동의보감을 옮겼다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새로이 의서들을 일일이 뒤져서 재구성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을 청나라 이전의 50여종 의학문헌을 인용수집, 집대성한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수많은 의방서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의학의 체계를 새로이 구성한 조선의 대의학자 허준의 이름은 간 곳이 없다. 그 자리에 청나라 의원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침구경험방이 간행된 지 몇 백 년이 흘렀다. 이 책은 그동안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무수히 활용됐다. 나아가 일본과 중국으로 전해져 의술분야에서 한류(韓流)를 만들어 내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선조들이 가꾸어온 소중한 생명건강문화를 이웃 나라와 나누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청나라에서 침구경험방과 동의보감의 침구 관련 부분을 그대로 베껴 출판하면서 그 원래의 저자와 편자에 대한 기록을 뺀 채 책을 팔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하루 바빠 바로 잡혀야 한다.



침구경험방 집필지, 충청도 공주를 가다

곰나루 건너 논길 들어서면 허임 선생의 숨결이

허임 선생이 정착해 침구경험방을 집필한 뜸밭골은 충청도 공주 감영의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뜸밭골은 그 형국이 곰나루에서 바라보면 금강에 놓인 배와 같다 하여 ‘뜸배’에서 ‘뜸밭’으로 다시 ‘뜸밭’으로 바뀌어서 생긴 지명이다. 이 ‘뜸밭’의 한자 표기가 부전(浮田)이다. 이 지역 백성들은 뜸밭이란 이름을 즐겨 쓰고 있다.

부전동의 자연지리적 환경은 차령산맥의 한 줄기인 해발 614m의 무성산이 주봉으로 버티고 있으며, 남쪽에는 아름다운 금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주산인 무성산으로부터 시작되는 2개의 능선이 북에서 남으로 길게 내려 뻗으면서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으로 골을 동서로 감싸고 있다. 이 능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앞으로 해발 192m의 연미산과 170m의 채죽산이 동서에 각각 우뚝 솟아 있다. 이 연미산과 채죽산의 사이에는 곰나루(熊津)가 위치하고 있다.

곰나루에서 길게 20리를 뻗은 뜸밭골의 중앙에는 무성산에서 나는 각종 나뭇과 약초가 모여드

는 저자거리가 있다. 이 저자거리의 인근 마을인 내산리에 허임 선생의 부조묘가 있다. 부조묘는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를 기리기 위하여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영구히 기리도록 명을 하여 위패를 모시도록 한 사당이다. 허임 선생은 인조 때 공신으로 부조묘가 세워지고, 허임의 후예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는 제사를 해마다 지내왔다.

늘 백성들 가운데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며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했던 허임은 중년이 지나

서야 이 평범한 농촌마을에 정착해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한편 침구의술을 가르치고, 평생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침구경험

방을 집필했다. 금강의 곰나루에서 뜸밭골 논길을 따라 들어서면 허임 선생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침구경험방이 탄생한 충청도 공주 뜸밭골.